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특성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Characteristics of Corsets in Modern Fashion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8. 4. 17. 접수: 2008. 10. 3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corsets that represent an undergarment that later became a popular outerwear. It discusses its forms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to help create a unique fashion design and its execution.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works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and the materials for the literatures and exploratory study are fashion-related portfolio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magaz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andard look of corsets in modern fashion can be classified into styles of glamour, revival, and dismantle. The materials used vary from traditional fabrics such as satin or lace to newly developed materials such as metal or glass. Its presentation can also differ in that it may be used as an accessory with additional details, as an outerwear, as an extra decorative layer, or as a revealing innerwear by open outerwear. Characteristics of these various looks of corsets are; first, it redefines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corsets through introduction of its historic elements and its compromise. Second, glamorous and feminine images are maximized through drastic and direct exposure by using tight lacing, a waist nipper or garter belts that emphasize a woman's curve. Third, it represents borderless dismantlement through experimental and irregular images using unconventional materials, new execution techniques, or alteration from the standard forms.

Key words: corset look(코르셋 룩), retrospective(복고성), sensualism(관능성), deconstruction(해체성).

I. 서 론

현대사회에 있어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기호의 하나인 패션은 단순한 양식이나 유행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의소소통의 코드이자 하나의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특히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

념 또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바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현대 패션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수많은 의복의 아이템 중 속옷은 신체와 겉옷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적 요소와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적 요소의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조화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패션계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이러한 고정관념

* 교신저자 E-mail : bcbgyoung@hanmail.net

의 들을 넘어선 패션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990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마돈나(Madonna)의 공연 의상으로 디자인 한 코르셋드레스 이후 속옷 같은 겹옷, 겹옷 위에 입은 속옷 등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출하려는 욕구와 패션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신소재의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속옷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패션 스타일로 인식되게 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1994년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서 'Infra Apparel'이라는 주제 하에 대규모 전시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르셋 룩의 유행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¹⁾ 언더웨어로서 코르셋에 관한 연구나 코르셋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 코르셋 룩의 디자인 분석 또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에 따른 단편적인 언급에 국한되어 있어 코르셋 룩의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인 코르셋 룩의 조형성과 특성을 고찰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와 인출에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코르셋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변천과정은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코르셋 룩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는 코르셋 룩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 내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여 Vogue, Harper's Bazaar, Collections, Gap press, Fashion news 등 국내외 패션잡지와 컬렉션지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코르셋과 코르셋 룩의 개념

코르셋은 다른 어떤 속옷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온 의복으로 흉부에서 복부까지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 시대에 유행되는 의상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체형을 보정시키고자 사용되었던 여성용 속옷으로 그 명칭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변화되었다. 중세에는 코르사주(Corsage), 르네상스시대에는 바스퀴느(Basquine), 포르피케(Corps-Pique), 바로크 시대에는 코르발렌느(Corps Balaine)로 불렸으며,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코르셋이란 명칭으로 남녀 모두 착용되었다²⁾. 나무, 고래뼈, 강철 등의 단단한 심을 넣어 특수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여성에게 그 우아한 복장의 외형과는 반대로 여성의 자인스러운 체형과 쾌적함의 제한, 또 성 기관이 손상되는 위험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온 것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을 존중하면서 부분적으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조금은 여유 있는 보디슈트나 거들의 형태로도 착용하고 있다³⁾.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악센트로 한 여성적인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코르셋을 본떠 겹옷으로 입도록 디자인된 것과 체형을 다듬기 위한 속옷으로서의 코르셋을 겹옷으로 입는 경우까지 포함해 코르셋 룩이라 한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겹옷으로 변형시켜 기존 복식에 대한 도전적인 이미지의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코르셋은 인프라 의상의 주된 아이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김영아, 최현숙, "Corset와 Supra 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복식 50권 4호 (2000), pp. 165-180.

구정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남미향, 이순홍, "Underwear에 관한 고찰," 복식 50권 1호 (2000), pp. 129-144.

유문경, "코르셋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래,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겹옷화 현상," 복식 35권 (1997), pp. 325-341.

이순홍, 김서영, 김은란, "코르셋이 주는 여성 인체변화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 연구 17권 (2003), pp. 63-79.

임성민, 박민여, "나르시시즘을 통한 코르셋 착용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0권 6호 (2006), pp. 851-858.

최경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디자인 분석,"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6권 5호 (2002), pp. 72-86.

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p. 214.

3) 이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 복식의 아이템, (서울: 경춘사, 2005), p. 329.

2. 코르셋의 역사적 변천

코르셋의 기원은 기원전 1500년 경 크레타에서 남녀 모두 허리를 극도로 가늘게 조이기 위해 사용한 넓은 코르셋 벨트와 12세기의 삽화를 통해 또 중세말 기인 고딕시대에 속옷이 아닌 겉옷의 형태로 착용된 코르셋의 형태를 한 코르사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세에는 인체의 자연곡선을 무시 없이 따랐기 때문에 신체 교정을 목적으로 한 타이트한 코르셋은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코르셋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파팅게일 등 육체미를 강조하는 실루엣의 과장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시대에는 코르셋이라 부르지 않고 과장적인 의상 형태에 따라 바스펜느, 꼬르피케라 불렀다. 바스펜느는 코르셋의 일종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했으며, 앞이나 옆, 뒤가 트인 몸통을 조이는 조끼 형태로 단단한 나무 조각, 고래수염, 뽕, 금속, 상아로 만든 바스크를 두 겹의 린넨이나 울 사이에 넣고 촘촘하게 누빈 것을 말한다. 꼬르피케는 바스펜느보다 딱딱함을 고강시킨 것으로 원하는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앞이나 뒤 중앙이 아래로 뾰족한 형태로⁵⁾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형태가 약간 변하면서 명칭도 변화되어 프랑스에서는 꼬르 발렌느, 영국에서는 스테이즈(Stays)라고 했다. 꼬르 발렌느는 17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사용한 코르셋으로, 면이나 린넨으로 두껍고 촘촘하게 짠 직물사이에 곡선과 직선의 고래수염을 이용해 배와 등을 편편하게 하고 유방이 더욱 풍만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⁶⁾. 프린세스 라인처럼 사선으로 자르고 촘촘하게 바느질한 것으로 중심이 예각으로 된 것과 약간 등글게 생긴 것이 있으며, 도련에는 탭이 달려 있어서 허리선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게 되어 있다⁷⁾. 코르셋의 여명은 영국의 영향으로 앞 중심보다는 뒤에 위치

하는 것이 많아서 대개 다른 사람이 허리를 조여 주었다.

로코코 시대의 코르셋인 꼬르 발렌느는 유방을 강조하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더 정교하게 제작되었는데, 꼬르 발렌느, 발렌느 드 드레사즈(Baleine de dressage), 꼬르 드미 발렌느(Corps demi baleine) 등이 사용되었다. 발렌느 드 드레사즈는 유방선과 같은 모양의 곡선으로 된 고래수염을 가슴부분에 수평으로 삽입시켜 곡선으로 다듬고 등에는 수직방향으로 직선 고래수염을 집어넣어 편편하게 하여 이음선의 방향이 앞 중심을 향해 V자가 되어 허리를 가늘어 보이도록 하였다⁸⁾. 이와 같이 코르셋은 16세기 이래 완전한 형태를 가진 금속 코르셋으로 차차 개량되어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는 효과와 입어서 편안함을 겸할 수 있는 구성기술까지 도입되어 종래의 강한 압박을 없애고 체형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전기 엠파이어 시대에 이르러 인위적인 조형성을 나타내는 코르셋의 중요성은 전시대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1804년에는 하이 웨스트의 코르셋이 등장하기도 하고, 풍만한 가슴과 가느다란 허리를 선호하던 시대였으므로 긴 길이의 코르셋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뒤에서 끈으로 졸라매게 되어 있고 능직면포에 고래수염으로 심을 넣어 신축성을 유지하였다. 로맨틱 시대에는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한 코르셋이 다시 부활하였는데, 신축성 있게 짠 능직의 면직물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으며, 몸의 곡선에 따라 채단된 천으로 바느질하여 부피와 크기가 크지 않고 입고 활동하기에 편리하였다. 또 신축성 있게 짠 능직과 고래수염으로 만든 길이가 짧은 반 코르셋이 주로 사용되었다⁹⁾. 1840년부터 신축성이 있는 코르셋의 구성법이 연구되었고, 1844년 뒤블랭(Dumoulin) 여사에 의해 딱딱한 바스크나 고래수염을 사용하지 않고 형견을 조각조각 연결한 코르셋이 고안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1847년 특수한 고리가 고안된 후부터는 앞

4) 이의정, 김소영, *언더웨어*, (서울:교학연구사, 2001), p. 54.

5) 공미란, *언더웨어 디자인*, (서울: 경춘사, 2006), p. 18.

6) 이의정, 김소영, *Op. cit.*, p. 54.

7) 공미란, *Op. cit.*, p. 21.

8) 고영아, 최현숙, *Op. cit.*, p. 168.

9) *Ibid.*, p. 168.

중앙을 고리로 고정시켰고 뒤 중심을 끈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¹⁰⁾.

머슬시대에 이르러 S자형의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해 코르셋이 더 강화되었는데, 앞이 납작하고 허리를 부풀리기 위해서 뒤가 짧은 스타일을 착용하였다. 1900년에는 프랑스의 샤로트(Sarraute) 부인이 바스크를 직선으로 만들어 가슴에서 복부까지 평평한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게 건강 코르셋을 창안하여 주목을 끌었는데, 이는 유행을 추구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¹¹⁾.

그러나 아르누보 시대에 이르러 허리에서 힙까지 가늘게 정리되면서 배에 곡선이 아닌 직선의 비스크를 가슴에서 복부까지 평평하게 함으로써 가는 허리와 위로 떠올려진 유방의 과장된 실루엣으로 일명 S 커브를 만들었다. 이른바 S 커브 실루엣으로 알려진 이것은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유행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코르셋을 장시간 착용했을 경우 신체는 독특한 S자형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척추만곡 등 여러 가지 변형을 초래했다¹²⁾.

그 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로 인해 코르셋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 신체는 자연스러운 체형으로 대체되었고, 여성의 몸을 조이는 코르셋은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라 선택적인 기호품이 되었다. 1930년대에는 직물산업의 발달로 라텍스와 슬라이드 파스너를 이용한 실크 코르셋이 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체형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실크 코르셋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¹³⁾. 그 후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이 부풀린 가슴과 가는 허리가 강조된 뉴룩을 발표하여 여성적인 곡선미가 부활되어 코르셋이 다시 유행하였으나,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등장과 1970년대 펑크와 팝의 영향, 그리고 패션의 캐주얼화 등 다변하는 생활 양식으로 코르셋의 사용은 주춤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패션은 다변화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한 자신의 과시욕과 세기말적인

사회현상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코르셋은 속옷으로만 그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겉옷화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시대의 전환기를 이루게 되었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조형성

오늘날 많은 의복들은 속옷을 겉옷화하거나 디테일의 장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전혀 다른 소재를 의복의 한 부분으로 선택시켜 사용함으로써 기존복식의 진통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인체를 구축하는 도구였던 코르셋은 더 이상 억압과 학대보서가 아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조형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타일

코르셋 룩에서 나타난 스타일은 여성미에 대한 강한 표현으로 인체를 줄라매는 타이트 레이스팅 기법을 이용하여 관능미를 나타내는 글래머 스나일과 과거 복식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과거의 코르셋을 현대 패션에 응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복고 스타일, 그리고 패션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탈피하여 코르셋의 라인이나 디테일을 모티브로 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된 해체적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글래머 스타일은 풍만한 가슴과 힙, 가는 허리선을 강조하여 여성의 섹시하고 볼륨감 있는 육체의 곡선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관능적인 형태를 말한다. <그림 1>은 코르셋에서 중심이 되는 디테일인 레이스업을 사용하여 몸을 타이트하게 줄라매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가슴은 더욱 풍만하게 허리는 더욱 가늘게 조여 여성스러운 관능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코르셋의 레이스업을 응용한 디자인은 몸판의 앞이나 뒤, 옆 등 다양한 위치에 활용되어 속박의 이미지와 함께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관능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10) 공미란, *Op. cit.*, p. 30.

11) 남미향, 이순홍, *Op. cit.*, p. 132.

12) 구성운, *Op. cit.*, p. 9.

13) 이순홍, 김서영, 김은란, *Op. cit.*, p. 67.



〈그림 1〉 Versace. 2003 F/W(Vogue, 2003. 5). 〈그림 2〉 Christian Dior. 2004 F/W(Vogue, 2004. 9). 〈그림 3〉 Jean Paul Gaultier. 2007 S/S(Harper's Bazaar, 2007. 1).

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표방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현대 패션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하고 내적인 미적 가치를 표출하여 외복이라는 조형요소로서의 구현을 이루어 왔다¹⁴⁾. 그러나 옛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현재 대중들에게 익숙한 옛 양식을 선보이며 인간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도록 새로운 양식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림 2〉는 18세기 유럽 황실에서 영감을 받아 다소 과장된 형식으로 컬렉션을 개최한 2004 F/W 디올의 작품이다. 모든 의상들은 허리둘레가 53cm 밖에 되지 않은 코르셋으로 허리라인을 강조하였는데 극단적인 실루엣, 과장된 헤어와 메이크업과 함께 코르셋은 화려하고 판타스틱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그리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 중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해체적 스타일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코르셋 룩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표현 양식을 나타낸다. 〈그림 3〉은 코르셋의 라인에서 영감을 받아 코

르셋의 뼈대만으로 구성된 이브닝드레스이다. 속옷의 겉옷으로의 진위는 의상을 파괴시켜 미완성을 향한 읽은 듯 하면서 무언가 완전히 못한 파괴와 해체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코르셋을 재치있는 유패하므로 전위시켜 유용한 것이라 하겠다.

2. 소재

현대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복합주의 혹은 다원주의적인 현상은 문화계 전반의 이슈로 조형예술계에서도 장르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정신성이 내재되기만 하면 어떠한 작품도 용인되는 제작 태도가 중요한 경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¹⁵⁾, 패션 역시 표현영역의 확대 및 소재나 기법을 공유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전통적 의상 개념인 실용적 문제와는 별개로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과 창조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미가 가치 현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조형예술로서 기인한다기보다는 20세기 과학문명의 혁신적인 발전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소재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현대 패션에 있어 소재 영역의 확장성은 결국 디자인에 독창적이고 부한한 영감을 주게 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시키게 되는 것이다.

코르셋 룩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코르셋에 사용되어 온 새틴, 레이스 등의 전통적인 소재 외에도 금속, 유리, 메탈 등 이질적인 소재, 또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독특한 신소재의 개발로 다양하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는 18세기 풍의 브로케이드와 레이스 등 고전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코르셋 룩이고, 〈그림 5〉는 시스루 소재인 레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코르셋의 형태와 라인을 재현하고 이를 장식적인 라인으로 이용하였으며, 시스루 소재를 통한 간접 노출로 애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림 6〉은 말의 안장을 연상시키는 승마복 스타일에 함께 연출된 가죽 코르셋으로 중성적인 매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7〉과 같이 PVC 소재의 코르셋, 〈그림 8〉과 같은 몰딩 형식의 코르셋, 그리고 라텍스, 라이크라, 고무 등 스트레치성의 신소재를 사

14) 최경희, *Op. cit.*, p. 77.

15) 송변수, *The Modern Fabric Art*,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p. 20.



〈그림 4〉 Versace. 2002 F/W *Fashion news*, Vol. 80).



〈그림 5〉 Gianfranco Ferré. 2003 F/W *Harper's Bazaar*, 200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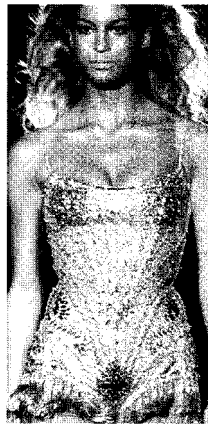
〈그림 6〉 Jean Paul Gaultier. 2004 F/W (*L'Officiel*, 2004. 8).



〈그림 7〉 Dolce & Gabbana. 2007 S/S (*Vogue*, 200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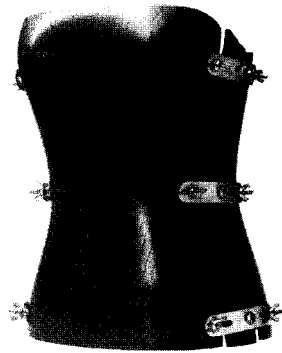
〈그림 8〉 Issey Miyake. 2006 F/W (*Gap*, Vol. 70).



〈그림 9〉 Versace. 2002 S/S (*Fashion news*, Vol. 76).

용하여 미래적인 모던한 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패션에 있어 비닐이나 에나멜, 금속과 같은 반짝이는 광택 소재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 반사 효과로 인하여 시각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연상 작용을 일으켜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는데, 〈그림 9〉는 화려한 색상의 시퀀 장식에 의해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 10〉 Hussein Chalayan. 1995 F/W (*Vision of the body*, p. 20).

변하는 색상으로 실루엣의 화려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림 10〉은 자연소재인 나무와 산업사회의 부속물인 금속볼트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이질성을 나타내는 코르셋으로 여성의 몸에 강제되어온 이상적인 인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재인식하게 하는 실험성을 표현하고 있다.

3. 연출 방식

복식의 역사 속에서 속옷은 신체와 가장 가까운 옷으로서 매우 자극적인 의복형태로 간주되는 사적인 아이템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특히 시대마다 변화되어온 여성 인체에 대한 개념은 점점 날씬한 몸매와 가슴이나 엉덩이, 허리와 같은 여성적인 부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겉옷의 기조이자 이상적인 여성적 체형의 성과물로서 속옷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기존문화에 대한 반동은 착장의 변형을 가져와 사적인 영역의 속옷들을 겉으로 드러내며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 오늘날 코르셋은 그 의미나 용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단순히 여성의 체형을 압박하여 보정하는 속옷의 용도라기보다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외부로 표출해내는 외의의 용도로 변화되어 자유로운 여성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새로이 재해석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코르셋 목록에서 보이는 연출 방식을 살펴보면 첫

째, 코르셋을 그 자체로 의외로 나타낸 경우(그림 11), 둘째, 코르셋의 형태나 디테일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로 활용한 경우(그림 12, 13), 셋째, 겉옷 위에 다시 코르셋을 착용하여 겉과 안이 바뀐 트랜스포미즘의 방식을 보이는 경우(그림 14), 넷째, 소재나 형태의 변형을 가해 코르셋의 장식적인 겉옷 기능에 중



〈그림 11〉 Christian Lacroix, 1997 F/W (Vogue, 1997. 9).



〈그림 12〉 Dolce & Gabbana, 2007 F/W (Vogue, 2007. 5).



〈그림 13〉 Eymeric Francois, 2005 F/W (Gap, Vol. 14).



〈그림 14〉 John Richmond, 2002 S/S (Harper's Bazaar, 2001. 12).



〈그림 15〉 Thierry Mugler, 1998 F/W (Vogue, 1998. 9).



〈그림 16〉 Christian Dior, 2006 S/S (Vogue, 2006. 3).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Infra Apparel, p. 9).

점을 둔 경우(그림 15, 16), 다섯째, 겉옷을 의도적으로 오픈하여 코르셋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경우로 나타났다(그림 17).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특성

1. 복고성

〈The culture of Fashion〉에서 크리스토퍼 브레워드(Christopher Breward)는 20세기 후반 패션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킨 현대적 감각의 접근을 통한 과거 복식사로부터의 자기 참고적인 특성이라 하였고¹⁶⁾, 보드리야르(Baudrillard)가 패션은 항상 과거 형태의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재순환이라고 지적하였듯이¹⁷⁾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과거로의 회귀 또는 복고성의 이름으로 과거의 스타일들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과거를 풍미했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들을 현대적 재질, 새로운 기술, 현대적 디자인과의 결합으로 과거의 답습이나 모방이 아닌 역사적 전통성의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절충적인 방안으로 새로움을 창출하고 과거의 이미지만을 과거성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순간적이고 불연속적인 이미지를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러한 현상은 과

16)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p. 233.

17) Jean Baudrillard, *Symbolic Exchange and Death*, (London: Sage, 1993), p. 88.

거에 대한 애정 어린 향수와 현시대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찾고자 하는 과거로의 동경. 인간 본연의 회귀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옛 것에 대한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현재 인간의 감정과 정서, 시대상에 맞게 재구성된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간차를 극복한 시대성의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고성의 특성은 코르셋 룩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해석이나 이마지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18세기 복식 양식에서 영감을 얻어 컬렉션을 개최한 2004 F/W 다울의 작품인 〈그림 2〉와 같이 코르셋을 이용하여 당시의 복식양식을 재해석함과 동시에 과장된 헤어장식과 메이크업 등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그림 18〉은 르네상스 시대 코르파케와 같은 형태의 코르셋을 착용하고 한쪽 가슴을 노출시켜 에로틱한 분위기를 나타냈으며, 〈그림 19〉는 과장된 헤어와 함께 러시아, 아프리카, 영국, 중국풍이 섞인 글로벌 시대의 에스닉 룩을 선보인 1997 F/W 지방사(Givenchy)의 작품으로 인체 라인을 따라 사방으로 규칙적인 절개 라인을 보여주는 크르 발렌느 형식의 코르셋과 어깨를 드러낸 가슴 라인으로 보다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면

서 복합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역사적인 요소의 차용으로 화려하고 강한 개성을 나타내는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는 “내가 만든 모든 의상은 과거의 역사, 문화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어느 무엇도 새로이 발명되지 않는다¹⁸⁾”라고 하여 과거의 이미지에 대한 감흥과 역사적인 복식들이 그의 작품에 있어 필수적인 원동력을 밝혔다. 〈그림 20〉은 그의 작품 중 역사적인 요소의 차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르셋드레스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요정 이미지를 표현한 1998 S/S에 깊게 뜬 데콜테와 인위적으로 과장된 인체의 곡선을 강조한 코르셋은 레이스와 술 장식의 부드럽고 울퉁감을 주는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변화감을 준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 인체를 억압하는 속옷으로서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던 코르셋은 겉옷화 되어 주로 드레스류의 화려함을 가증시키고 기존의 성이 갖는 인식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다양한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바바라 빈켄(Barbara Vinken)이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영원한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¹⁹⁾ 말한 바와 같이 현대 포스트모



〈그림 18〉 Hubert Barrere. 2001 F/W (Vogue, 2001. 9).



〈그림 19〉 Givenchy. 1997 F/W (Vogue, 1997. 9).



〈그림 20〉 Christian Lacroix. 1998 S/S (Vogue, 1998. 3).

18) 김선영, “오프쉬울드 작품에 나타난 현대 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20.

19) Christopher Breward, *Op. cit.*, p. 232.

20) C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1996), p. 166.

더니즘 패션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인 코르셋 룩에서 보이는 복고성은 과거의 충실한 재현이 아닌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이미지의 차용과 재해석으로 나타났다.

2. 관능성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복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가 반영되어 유혹의 원천을 따른 것으로 관능성을 표출하는 인체의 노출이나 여성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표현들은 여성복에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전통적인 여성미의 개념으로 전달되어 왔다²¹⁾. 특히 속옷인 코르셋을 이용하거나 코르셋을 겉옷화 시켜적,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관능적 표현은 인간 내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구사하고 여성 인체를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육체 그 자체를 복식미의 한 구성 요소로써 받아들여지게 하여 여성의 신체를 통한 애로된 관능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관능적 이미지의 표출은 여성들이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감과 함께 당당함을 표출하여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과시하고 여성의 위치가 남성에게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성적인 이미지를 거부하고 여성적 특질을 강조하여 육체적인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패션에 있어 코르셋 복을 이용한 관능성의 표출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주체적인 표현으로써 과거처럼 남성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여성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대소비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특질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알파 걸의 특성과도²²⁾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현대 패션에 있어 관능적인 스타일의 유행과 극대화된 노출 경향은 은폐되어 왔던 성적 부위 전체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풍만한 가슴과 힙, 가는 허리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섹시함을 강조한다. 코르셋 룩은 이러한 경향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스타일로 <그림 21>과 같이 인체 곡선을 살려 관능적인 형태로 실크, 새틴 등의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매력을 최대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 22>와 같이 코르셋의 가슴부분에 절개선을 넣어 가슴의 일부분을 엿보이도록 노출시키거나, <그림 23>과 같이 타이트한 코르셋으로 허리를 강조하고 가슴 부분에 비치는 망사 소재로 가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동시에 가슴을 강조시키고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비치는 레이스 소재를 이용한 코르셋 룩으로 인체의 곡선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직접적이고 선정적인 노출과 시스루 소재에 의한 간접 노출과 은폐로 관능적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 코르셋 룩의 중심이 되는 디테일인 타이트 레이스 기법을 통해 인체 라인을 강조하고 <그림 24>와 같이 원피스 옆선에 이용하여 간접 노출을 통한 관능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또 오늘날 다양한 매체들을 접함으로써 노출의 정도에 무감각해지고, 성 문화의 역할 변화에 따라 성은 자유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그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표현의 욕구를 분출하여 성에 대한 개방과 집착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왜곡과 강조의 노출로도 나타난다. <그림 15>는 코르셋과 가터벨트를 응용하여 성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의 굴레를 벗어난 해방감을 표



<그림 21> Gucci. 2003 F/W(Harper's Bazaar, 2003. 5).



<그림 22> Versace. 2004 S/S(Cap, Vol. 11).

21) 채금석, 이화정, “밀리터리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연구,” 복식 52권 1호 (2002), p. 112.

22) “알파 걸을 잡아라” 조선일보 (2007. 5. 1), B3.



〈그림 23〉 Arka-
dius, 2002 F/
W(Vogue, 2002.
5).



〈그림 24〉 Dol-
ce & Ga-
bbana, 2003
S/S(Vogue,
2002. 12).

현하는 동시에 여성의 성적 상징을 과시함으로써 관능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코르셋을 이용하여 현대 여성 패션에서 노출의 정도가 대담해지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체를 노출하려는 욕망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속옷을 노출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성의 상징이 되는 여성 인체의 부분을 직접적인 노출과 은폐라는 감춤으로 에로티즘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보다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코르셋 룩의 타이트 레이스, 웨이스트 나퍼, 가터벨트 등 성적 부분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모티프를 삼는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변화된 관능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의 신체 매력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미에 있어 부드러움 같은 섬세함의 특질을 표현한 여성성의 강조와는 다른 이미지로 여성의 인체를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닌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보다 관능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3. 해체성

20세기 후반 기존 모더니즘 문화 현상에 대한 반발로 탈 모더니즘 현상이 대두되면서 기존 개념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졌고²³⁾, 1966년 자크 데리다(J. Derrida)를 중심으로 나타난 해체주의는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 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이며, 개체의 존엄과 자유, 차이, 타자, 역사성을 인정하게 하였다²⁴⁾.

패션에서 '해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서로 기존 의복구성이나 디자인의 원리들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한 양식들로 나타났다. 의복의 형태는 시대 즉 사회 환경에 따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세기 후반 경제적 위축과 정치 상황의 급변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다음 세기への 기대감 등 사회적 정체성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신과 몸심이 분해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예술에 있어서는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해체주의 특징은 텍스트의 혼합 사용, 소외된 타자의 부각 등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 외적 형식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즉 성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시각의 제시와 착장 방식 및 디자인의 변형을 통한 스타일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르셋 룩과 같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미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부가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해체패션의 대표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는 코르셋 룩은 〈그림 12〉와 같이 메탈 소재로 된 코르셋 벨트로 전환되어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여 표현되기도 하고, 〈그림 13〉과 같이 중성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과 함께 타이트 레이스 기법의 벨트로 연출되어 성의 모호성을 가증시키기도 한다. 또

23) 김혜숙, 김혜련,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p. 309.

24) 김성근,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8), p. 15.

25) 김선영, "장 폴 고티에의 오프무드 룩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4권 4호 (2006), p. 4.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영향을 표현한 〈그림 16〉은 코르셋을 분해하고 해체시켜 형태와 비례를 무시한 모호하고 부조화와 불일치 등의 추의 개념으로 미의 해체를 도모하였고, 〈그림 25〉와 같이 코르셋 드레스 위에 다시 지퍼를 이용하여 장식함으로써 지퍼를 열고 닫음에 따라 실루엣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불확정적인 형태의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림 26〉은 코르셋의 형태를 그대로 두고 내부의 모든 구조선들을 컷팅시켜 탈 구조적 해체를 도모한 장 폴 고틀리에의 작품이다. 그가 속옷 같은 겉옷이 유행하며 아세까지의 의복에 관한 고정관념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그 관념에 대해 “우리 시대의 패션에 터부란 없다. 속옷의 아름다움을 감추어 두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²⁶⁾”라고 말하였듯이 코르셋은 더 이상 속옷이 아니라 겉옷으로 그 기능이 전이되어 새로운 개성표현의 한 방법이 되고 있다.

또한, 패션 소재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의 확산과 해체로 인한 상호 텍스트적 경향은 지금까지의 패션에서 감지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를 만



〈그림 28〉 Givenchy.
2000 S/S(Vogue,
2000. 3).

들어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과학문명의 혁신적인 발전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소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코르셋에 사용되어 온 새틴이나 레이스 등의 전통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그림 27〉과 같이 메탈, PVC,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여성 인체를 왜곡하고 육감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그림 28〉과 같이 주물형식을 이용한 메탈코르셋 위에 메탈 장미꽃을 장식하여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우아한 이미지의 코르셋 룩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코르셋 룩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 이탈, 비정형적인 이미지들은 그 착용 대상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코르셋이 갖는 상징적 의미의 허구성을 표출하게 한다. 또한, 코르셋 고유의 의미는 사라지고 각기 다른 분위기의 단품 아이템을 코디네이션하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그 스타일들의 경계와 구분을 흐려지게 하여 연출되는 코르셋 룩은 불확정적인 의미의 해체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코르셋 룩의 다양한 변화는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경계 초월을 통한 디자인 영역의 확대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25〉 Eymeric Francois. 2003 F/W(Fashion news, Vol. 88).

〈그림 26〉 Jean Paul Gaultier. 2001 S/S(Gap, Vol. 84).

〈그림 27〉 Dolce & Gabbana. 2007 S/S(Harper's Bazaar, 2007. 1).

26) 이상례, *Op. cit.*, p. 331.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조형성과 특성

	스타일	소재	연출 방식	
복고성	- 과거 코르셋의 형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	- 실크, 새틴, 레이스 등 전통적인 소재	- 코르셋을 그 자체로 외의로 나타내고 장식적인 겹옷의 기능으로 표현	
관능성	- 타이트레이싱 기법으로 여성 인체의 곡선미 표현	- 실크, 새틴, 레이스 등 전통적인 소재와 시스루 소재	- 코르셋을 그 자체로 외의로 나타냄 - 소재나 형태에 변형을 가해 장식적인 겹옷의 기능에 중점을 둠 - 직·간접적인 노출을 표현	
해체성	- 코르셋라인이나 형태, 디테일을 모티프로 기형화, 비정형화 등 해체적으로 표현	- 실크, 새틴, 레이스 등 전통적인 소재와 시스루 소재 - 금속, 유리, 메탈, 나무, 플라스틱, PVC, 신소재 등 이질적 소재	- 코르셋의 형태나 디테일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로 활용 - 겹옷 위에 착용한 트랜스포미즘의 방식 - 소재나 형태에 변형을 가해 장식적인 겹옷의 기능에 중점을 둠 - 겹옷을 의도적으로 오픈하여 코르셋을 노출	

V. 결 론

코르셋은 인프라의상의 주된 아이템으로서 오늘날 단순히 여성의 체형을 압박하여 보정하는 속옷의 용도뿐만 아니라, 코르셋 룩이라는 하나의 스타일로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외부로 표출해 내는 외의의 용도로 변화되어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전개와 함께 자유로운 여성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새로이 재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속옷의 겹옷화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인 코르셋 룩의 조형성과 특성을 고찰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와 연출에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르셋은 흉부에서 복부까지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 사대에 유행되는 의상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체형을 보정시키고자 사용되었던 여성용 속옷으로, 그 명칭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변화되어 중세에는 포르사주,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스펜느, 포

르피케, 바로크 시대에는 코르발렌느로 불렸으며,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코르셋이란 명칭으로 남여 모두 착용되었다. 나무, 고래뼈, 강철 등의 단단한 심을 넣어 특수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여성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나, 오늘날에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을 존중하면서 부분적으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 패션의 경향이 다변화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한 자신의 과시욕과 세기말적인 사회현상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코르셋은 속옷으로만 그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겹옷화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시대의 전환기를 이루게 되었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코르셋 룩의 스타일은 여성미에 대한 강한 표현으로 인체를 줄라내는 타이트 레이싱 기법을 이용하여 관능미를 나타내는 글래머 스타일과 과거의 코르셋을 현대 패션에 응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복고 스타일, 그리고 코르셋이라는 기본

적인 틀을 탈피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된 해체적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재의 경우, 과거부터 코르셋에 사용되어 온 새틴, 레이스 등의 전통적인 소재 외에도 금속, 유리, 메탈 등 이질적인 소재, 또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독특한 신소재의 개발로 다양하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연출 방식 또한 코르셋을 그 자체로 외의로 나타낸 경우, 코르셋의 형태나 디테일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로 활용한 경우, 겹옷 위에 다시 코르셋을 착용하여 겹과 안이 바뀐 트랜스포미즘의 방식을 보이는 경우, 소재나 형태의 변형을 가해 코르셋의 장식적인 겹옷 기능에 중점을 둔 경우, 겹옷을 의도적으로 오픈하여 코르셋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경우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형성을 갖는 코르셋 룩의 특성은 복고성, 관능성, 해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과거 코르셋의 충실한 재현이 아닌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이미지의 차용과 재해석으로 나타나 기존의 성이 갖는 인식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우아하고 극적인 이미지의 복고성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코르셋의 타이트 레이스, 웨이스트 니퍼, 가터벨트 등을 이용하여 인체의 곡선과 성적 부분을 강조하고 비치는 소재, 트임을 이용한 간접노출 또는 과도한 직접적인 노출을 통해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 셋째,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새로운 연출 방식, 형태가변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코르셋 룩의 실험적이고 비정형적인 이미지들은 코르셋 고유의 의미 대신 경계 초월의 불확정적인 의미의 해체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여성 인체를 구속하는 도구였던 코르셋은 더 이상 억압과 확대로서의 아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새로움과 강한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 패션에 있어 코르셋 룩은 속옷의 겹옷화라는 현상을 뛰어 넘어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영감을 불어 넣고 있으며, 그 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영아, 최현숙 (2000). "Corset의 Supra 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복식 50권 4호.
- 공미란 (2006). *이너웨어 디자인*. 서울: 경춘사.
- 구정운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01).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영 (2006). "장 폴 고티에의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대한가성학회지* 44권 4호.
- 김성곤 (199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혜숙, 김혜련 (1990).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남미향, 이순홍 (2000). Underwear에 관한 고찰. 복식 50권 1호.
- 송변수 (1996). *The Modern Fabric Art*. 서울: 디자인하우스.
- 유문경 (1999). "코르셋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 (2005). *복식의 아이템*. 서울: 경춘사.
- 이상례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겹옷화 현상. 복식 35권.
- 이순홍, 김서영, 김은란 (2003). "코르셋이 주는 여성 인체변화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17권.
- 이의정, 김소영 (2001). *언더웨어*. 서울: 교학연구사.
- 임성민, 박민여 (2006). "나르시시즘을 통한 코르셋 착용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0권 6호.
- 정홍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채금석, 이화정 (2002).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복식 52권 1호.
- 최경희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디자인분석."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6권 5호.
- "알파 겹을 잡아라" (2007. 5. 1), *조선일보*. B3.
- Cerda Buxbaum (1996).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 Christopher Breward (1995). *The Culture of Fashion*.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Jean Baudrillard (1993). *Symbolic Exchange and Death*, London: Sage.